

[총론] 한국 민주주의와 국제 연대

임종명 _전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한국 민주주의는 해방 직후 정치적 제도화 이래의 역동적 ‘발전’ 속에서 오늘날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정치적·사회적 대의가 되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냉전 시대 권위주의 국가 통치 아래 억압되었던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한국인들의 주체적 노력의 소산이었다. 이점에 주목하여, 한국 민주화 관련 연구들은 한국 현대사에 있어 민주화를 위한 한국인들의 분투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한국 민주화 과정은 한국인 주체적 분투의 과정인 동시에 한국 민주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협력적 지원에 기초한 국제 연대의 과정이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국내·국제적 노력은 제2차 세계대전 이래의 세계적·동아시아적 냉전과 탈냉전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특히 1980~1990년대 한국 민주화는 당대 세계적 탈냉전이라는 국제 정치를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이에 유의하여 근래 한국 민주화 관련 연구들은 한국 민주화를 목적으로 한, 또 그것이 계기가 된 국제 연대, 나아가 그를 둘러싼 국제 정치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정근식·김학재·권영숙·주윤정이

2018년에 출간한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국제 연대』는 1970~1980년대 권위주의 통치하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을 지원하고 그것과 연대했던 세계 교회협의회(WCC)와 같은 국제 네트워크의 지원·연대 활동의 성과 등을 밝히고 그것을 역사·사회적으로 의미화했다. 또한 그 연구는 정치적 민주화만이 아니라 노동·농민 운동에서의 국제 연대를 위한 노력을 보여주면서, 향후 국제 연대에 관한 연구의 방법론과 관련 이론들의 개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 연대의 개념화 등의 노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제반 노력은 향후 제반 국제 연대 활동에 관한 연구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유념하면서, 『기억과전망』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는 “한국 민주주의와 국제 연대”라는 제하의 기획을 편성했다. 본 기획은 1970~19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을 계기로 형성된 국제적 연대 활동을 기억하는 한편, 그것을 한국의 민주화 또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는 맥락에서 역사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동시에 본 기획은 향후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지구적 연대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기존의 적지 않은 관련 논의와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내지는 ‘한국 민주화’를 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국제 연대 활동을 주 대상으로 했다. 이것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와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를 특권화하면서, 국제 연대 활동의 기본 취지를 무효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에 유의하여 편집위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 독일 연구·교육기관에서 재직하면서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기획 편성 소위원회(이하 소위)를 구성했다. 소위에는 독일의 이유재 튀빙겐대학교 교수와 미국의 이남희 UCLA 교수 일본의 오오타 오사무 도시샤대 교수

그리고 한국 황병주 국사편찬위 편사연구관과 임종명 전남대 교수가 참여했다. 소위 위원들은 작년 하반기 누차에 걸친 회의에서 기획 편성의 문제 의식을 가다듬는 한편 기고문 필자 선정 등 구체적 편성 방안을 논의했다.

본 기획은 미국과 독일, 일본 지역에서 이루어진 과거 ‘한국 민주화’를 위한 관련 연대 운동의 경험을 갖고 현재 해당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는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독일과 미국의 한국계 1.5세 네 분, 또 재일코리언과 일본인 두 분, 모두 여섯 분 기고자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여섯 편의 기고문들은 독일 등 앞의 세 개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현재의 연대 활동을 정리·소개하고 있다. 즉 여섯 편의 글은 일본 등지에서 ‘과거’ 한국 민주화운동을 계기·목적으로 하여 이루어진 국제 연대 활동을 소개하고 동시에 ‘현재’ 미국 등지에서의 소수자 차별에 반대하면서 확대·심화된 제반 연대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점에서 기고문들은 앞의 세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대 활동의 시간적이고 역사적인 변화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획은 연대 활동의 시간적 변화상과 함께 다양한, 때로는 경합적인 연대 활동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기본적으로 미국 등 각지에서의 연대 활동의 소개가 두 편의 기고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기고문이 동일 지역에서의 활동이라도 자신의 문제의식에 기초한 활동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와 같은 기획 구성으로 말미암아 본 기획은 지역 간, 또 지역 내 상이한 문제의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합적일 정도로 다양한 활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지는 편집상의 이유로 기획 기고문 여섯 편을 금번 46호와 47호에 각

각 네 편과 두 편으로 나누어 실고자 한다. 이에 따라, 46호에 게재되는 기고문들을 먼저 소개한다. 이유재의 기고문은 한국계 1.5세 독일 대학 교수의 글로서 파독 광부 가정의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 독일 이주와 그곳에서의 생활, 그리고 파독 광부·간호사의 ‘체류권과 인권투쟁’ 등에 관한 일상사적 서사로 시작된다. 이어서 1970~1980년대 한국 민주화·통일 운동을 중심으로 한, 독일한인 사회의 조직적 정치 운동의 흐름을 설명하고, 독일 내 ‘소수자’인 한인의 관점에서 그와 같은 운동의 함의를 제시한다. 다시 글은 자전적으로 전개되어, 1990년대 초 필자의 교환학생으로서의 한국 생활과 활동 경험, 그리고 독일 귀국 후 한인 2세 모임인 한가람 조직과 활동, 2000년대 사단법인 코리엔테이션 설립과 활동, 근래 아시아 인종 차별의 급증 상황에서 ‘아시아-독일인(Asian German)’으로서 중국·일본·인도 출신 등의 자기 표상 활동과 인권 투쟁을 소개하고 있다. 이처럼 기고문은 독일 내 한인 디아스포라에서의 삶과 투쟁, 그리고 ‘독일 사회에서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정 투쟁’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한인 1.5세로서 코리아협의회 대표이사 등으로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정화의 기고문이다. 글의 본문은 이유재의 기고문처럼 파독 간호사 가정의 1970년대 말 독일 이주와 그곳에서의 삶으로 시작된다. 이어서 글은 한국에 있던 친구의 광주항쟁 관련 연행과 고문, 그리고 수감 생활, 이로 말미암은 친구들에 대한 필자의 ‘부채감’에 관한 이야기와, 1980년대 후반 대학원 수학 시절 “한국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소위 운동권의 한인들”과의 만남과 재유럽민족민주운동협의회 활동, 그리고 1990년대 초 코리아협의회(이하 코협)의 창립과 활동의 소개

로 나아간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는 코헵의 2000년대 활동, 즉, ‘한국의 5·18, 4대강, 세월호, 2016년 촛불 시위’ 등의 독일 내 알리기 활동, 특히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독일 전 지역 순회강연, 그리고 2020년 ‘평화의 소녀상’ 설치와 존치를 위한 운동을 소개하고, 끝으로 코헵의 활동이 독일 사회에서 가지는 탈식민주의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이유재와 한정화의 기고문이 독일 지역 한인의 과거·현재 활동을 소개하는 글이라면, 미주동포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인 1.5세 서혁교의 투고문은 1980년 광주항쟁 이후 미국 지역 한인 운동의 변화상을 보여준다. 기고문은 1970년대 초 필자 가족의 미주 이민과 생활을 간략히 소개하고 1980년 광주학살 소식이 당시 대학생이었던 필자에게 주었던 “큰 충격”과 이 속에서 이루어진 ‘광주학살 관련 탄원서 제작과 배포’ 등의 활동을 이야기한다. 이어서 글은 광주학살 직후 한국에 대한 관심 고조 속에서 1984년 재미한국청년연합(이하 재미한청련)의 결성과 그 주체 및 활동을 소개한다. 글에 따르면, 재미한청련은 ‘한국의 민주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분단 종식 등을 지지’하는 1989년의 ‘국제평화대행진’ 등 각종 국제연대 활동을 전개했다. 끝으로 글은 1990년대 ‘민주 정부 출범 등의 한국 정치의 지형 변화’에 따라 한인운동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즉, 글에 따르면,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 직후 결성된 미주동포전국협회는 재미한인의 정치적 권한 신장 관련 제반 활동과 함께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반대 등의 연대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지역 내 ‘재일코리안’의 활동 모습은 ‘재일코리안’ 3세로서 히카시쿠조(東九条) 마당 실행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광민

의 기고문에서 보여진다. 기고문은 1980년 대학에 진학한 필자에게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알려준 ‘첫 창구’가 잡지 『세카이(世界)』의 “한국으로부터의 통신”이었다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어서 글은 교토역 남쪽에 위치한 재일코리안의 집주지역이 있는 히카시쿠조 지역의 주민과 그들의 직업 및 주거 상태, 그리고 교육과 복지 시설 등의 지역 문제를 설명한다. 이를 배경으로 하여, 글에 따르면, 1980년대 중반 그 지역에 한국의 민중문화를 계승하는 한마당이라는 문화패가 결성되면서, 지역 축제로서 문화를 통해 주민들이 만나 서로를 이해하고 공명하는 축제인 ‘히카시쿠조 마당’이 개최되었다. 이후 축제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그것은 세대 교체 등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조선인과 부락민,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등의 사회문제와 대면하고, 동아시아의 평화 등을 기원해 왔다고 한다.

지금까지가 이번 호에 게재되는 기고문에 관한 소개였고, 지금부터는 다음 호에 게재될 두 편의 기고문을 소개한다. 먼저 서울 출생의 미국 한인 1.5세 헨리 임 교수의 기고문, “1980년대 북한 공포증을 극복한 미국: 한국 ‘운동’과 연대하는 법을 배우다”는 서혁교의 기고문처럼 1980년 대학생 시절 광주 학살의 충격과 이러한 속에서 이루어진 시카고 주재 한국 영사관 앞 광주 학살 항의 시위로 시작된다. 이어서 글은 시위 당시 기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제기된 ‘북한 공포증’의 문제가 ‘극복’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런데 극복은, 글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에서의, 특히 필리핀에서의 민주화 연대 활동 경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내용의 기고문은 1980년대 미국과 필리핀, 그리고 한국에서의 다국적 연대 운동의 경험을 통해 확대·심화된 정치적 지평을 독자들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1980년대 초 대학생 시절 이래 한·일 연대 활동을 계속해 온 오오타 오사무 교수의 기고문 “스스로의 문화를 창조하다: 양민기와 마당극 운동”은 재일교포 2세 양민기의 마당극 운동 관련 활동과 그것이 만들어낸 문화, 그리고 일본에서 이루어진 마당극 운동을 설명한 글이다. 글에 따르면, 양민기는 1970~1980년대에 걸쳐 전개된 한국민족민중문화운동, 특히 마당극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81년에 『가면극과 마당극: 한국의 민주 연극』을 출간했다. 책 출간을 계기로 하여 마당극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운동(마당극 운동)이 1980년대에 오사카, 도쿄, 교토에서 시작되어, 1990년대에는 게이한신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되어 가면서, 그 운동은 양민기의 기고문이 다룬 히카시쿠조 마당과 같은 마당운동으로 계승·발전되었다. 오오타 오사무의 기고문은 양민기의 그것과 함께 일본 지역에서의 연대 운동의 구체적 모습과 그 의미를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소개한 것에서 보이듯, 기고문들은 활동 주체들의 자기 경험에 기초한, 그래서 자전적이기까지 한 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글들은 활동 과정에서의 고민과, 그에 따라 이루어진 활동 목표의 변화와 그 변화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변화는 무엇보다도 각 지역의 현실에서 일상적으로 제기되는 존재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현실 존재에서 제기된 일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 연대가 향후 지구적 규모에서 이루어질 민주주의 연대의 출발점임을 시사한다. 지구적 연대의 출발점에 관한 고민과 논의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본 기획의 의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